국보

국화와 흐르는 물, 나비 장식이 있는 팔 보호대

13 세기에 만들어진 팔 보호대입니다. 오늘날까지 온전히 남아 있는 일본 중세(1185~1568)의 유일한 보호대 한 쌍으로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.

이 갑주 부품의 두드러진 특징은 금도금한 정교한 장식입니다. 손 보호대 위에는 국화와 흐르는 물을 배경으로 날개를 펼치고 있는 나비가 새겨져 있습니다. 이 상서로운 문양은 장수를 상징합니다. 나비 날개의 세세한 부분은 새, 담쟁이덩굴, 갈잎 등 각기 다른 문양으로 꾸며져 있습니다.

팔 보호대의 가장 오래된 사례는 고훈 시대(약 250 년~700 년대 후반)의 하니와(일본 고훈 시대에 무덤 외부를 장식한 토기의 일종)라는 토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초기의 팔 보호대는 대부분 아래팔만 가리는 형태였습니다. 9 세기에 기마 궁수가 전장의 주를 이루게 되자 무사들은 오른팔로 활시위를 당겨 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왼팔에만 긴팔 보호대를 착용하기 시작했습니다. 양팔에 모두 긴팔 보호대를 착용하기 시작한 것은 검을 사용한 백병전이 더 흔해졌던 1300 년대 중반부터였습니다. 1200 년대에 만들어진 이 긴팔 보호대 한 쌍은 특히 초창기의 형태입니다.